<아시아 공동체론 에세이>

출석번호 106번 경제학과 정수빈

국제통상을 복수전공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 공동체론'이란 과목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개설된 과목이다 보니 수업계획서 외엔 정보도 없었고, 시험이 없으니 밀쳐야 본전이란 마음에 수업을 듣게 되었다. 아주강좌를 들어본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수업은 아주강좌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시아 공동체라는 큰 주제 하에 매주 새로운 주제, 새로운 연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진다. 국제통상을 복수전공하면서 국제관계입문부터 시작해서 국제법 등 국제 사회에 대해 공부할 기회는 많았지만, 현 국제 사회의 현상 및 쟁점에 대해 알 수 있는 수업은 거의 없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해주시는 게 다였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는 현 국제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업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하용출 교수님의 '러시아 기행'에서 시작해서 박성빈 교수님의 '한일관계의 변화'까지 15주에 걸쳐, 수업은 한중일의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북한 및 중앙아시아까지 폭넓게 다루어졌다. 첫 주 강의를 들을 때는 '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시아공동체론'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렇다 할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아시아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원한다면 이 수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그 어디에 가도 그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권하고 싶은 이유는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이다. 아시아공동체는 그 개념 자체도 모호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를 아시아공동체에 포함할 것인지 하는 경계도 정해져 있지 않다.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며,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 아시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의 정치·경제에 대해 유독 많이 다루어졌는데, 평소 일본에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후로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다르니까 안 된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비판을 해왔었다. 이견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반일감정의 정도에 비해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은 굉장히 적다. 상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에 대한 비판만 돌아올 뿐이다.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일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런 부분에서도 '아시아공동체론'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나는 이 수업을 듣고 난 지금 아시아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김종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아공동체는 어떠한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에 의해 뭉쳐야한다. 즉, 냉철한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한중일은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졌고, 그 속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시아공동체가 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그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부터 어떻게 공동체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아

시아공동체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과 일본의 지휘 아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전에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시아공동체론’이야말로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최적의 수업이라고 생각한다.